

제115주년
현도기념

포덕 161(2020)년 12월 1일

제 115주년

顯道기념



포덕 161년 12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천덕송_ 제13장 기념송 12

천덕송_ 포덕행진곡 14

권도문 15

기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_ 권도문

1. 천덕송 합창_ 제13장 기념송 / 1절-3절

1. 기념사

1. 천덕송 합창_ 포덕행진곡 / 1절-3절

1. 심 고

1. 폐 식

*식후행사

[사인여천 국민통합 문화제]
문화공연 / 사인여천 나눔행사

현도기념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봉건왕조로부터 탄압받던 우리 교단이 의암성사의 영단에 의해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이 세상에 신앙의 자유를 밝힌 지 115주년이 되는 현도기념일입니다.

되돌아보면 천도교가 현도되고 우리가 시천주(侍天主)의 무극대도를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날 수십만 선열들의 고난과 희생의 덕택입니다. 이를 상기할 때 실로 숙연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동덕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 도인들은 혹세무민하고 좌도난정하는 동학을 한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 유리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런 지목과 탄압 속에서도 도인들은 포덕 33년에 공주(公州)를 비롯해서 삼례(三禮), 서울 광화문(光化門), 보은(報恩) 등지에서 수만 명이 모여 이단(異端)으로 몰

려 순도하신 대신사의 신원(伸冤)을 탄원하였습니다. 대신사의 신원이 이루어지면 무극대도를 마음 놓고 신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인들의 피 끓는 하소연은 계속 무시된 채 탐관오리의 탄압과 가렴주구가 더욱 기승을 부리자 민심이 동요하게 되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듯이, 포덕 35년의 동학혁명은 이러한 민심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동학교문의 인권운동이며 구국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아니한 일본군의 개입으로 동학혁명은 좌절되고 결국에는 해월신사마저 체포되어 순도하는 비극적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암성사께서는 동학혁명 후 교단의 먼 앞날을 내다보며 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려던 계획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의암성사께서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앞서 망명한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하는 한편 현지의 개화된

문물과 세계사조를 직접 살피면서 낙후된 조국을 개화하는 것이 현도의 지름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암성사의 구상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포덕 45년의 갑진개화운동이었습니다.

의암성사의 명교에 따라 국내 도인들은 이용구를 회장으로 진보회(進步會)를 조직하고 이 해 8월 29일을 기해서 전국에서 일제히 민회를 개최하여 비정(秕政)혁신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흑의단발(黑衣斷髮)을 하고 20만 진보회원이 방방곡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쫓기하자 정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보회가 과거의 동학당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정부는 즉각 탄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진보회원들은 태천(泰川)의 고치강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희생되거나 투옥되는 수난을 당하게 되자 이용구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송병준이 조직한 일진회(一進會)와 합동하여 친일행각을 자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구나 이용구가 포덕 46년 11월에 ‘일본의 보호 아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매국적 성명서를 발표한 후 열흘 만에 을사늑약

이 강제 체결되자 국내여론이 비등하면서 일진회는 물론 동학교 문마저 친일단체로 매도당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의암성사께서는 이용구를 일본으로 불러 크게 질책하는 한편 긴급히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2월 1일을 기해서 ‘도는 비록 천도이나 학인즉 동학(道雖天道 學則東學)’이라는 경전 말씀에 근거해서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이를 「제국신문(帝國新聞)」과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연속 광고하여 세상에 공포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천도교의 대고천하(大告天下)요 현도(顯道)인 것입니다.

천도교의 현도는 은도시대를 마감하고 일제 46년 동안의 박해에서 벗어나 천도교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장거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암성사는 현도 한 달 후인 포덕 47년 1월 5일에 4년 여의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부산을 경유하여 당당하게 귀국하였습니다. 수만 명의 교인들이 열렬하게 환영하는 가운데 서울에 당도한 의암성사께서는 2월 10일 천도교대헌(天道敎大憲)을 공포하고, 이어 2월 16일에는 중앙총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국에 72개 대교구와 그 산하에 중소교구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교단조직과 제반 의제를 근대적 신앙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교단조직을 정비한 의암성사께서는 정교분리(政教分離)를 단행하여 이용구를 비롯한 배교친일(背敎親日) 두목 62인을 과감하게 출교처분함으로써 교단의 친일 누명을 청산하고 천도교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이용구 일당에게 신탁했던 동산·부동산 등 교단 재정 일체를 그들이 편취해 나감으로써 한때 엄청난 타격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암성사께서는 불과 3년 만에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천도교 현도 5년 후 우리나라는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하면서 일제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무단통치를 실시하여 교육기관과 종교단체를 제외한 국내의 모든 단체를 강제 해산시키고 언론 출판과 집회를 엄금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에 충성을 다했던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마저 가차 없이 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 동학혁명이나 갑진혁신운동 등 정치활동을 하면서 ‘동학당’이라는 단체로 알려진 우리 교단 역시 강제해산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학’을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현도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로 의암성사의 선견지명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의암성사께서는 망국의 비운과 외세의 강박이라는 시대적 역경 속에서도 전혀 포기하거나 굴함이 없이 천도교를 보국안민의 정신적 주체로 육성 발전시킨 불세출의 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후일 의암성사의 영도력에 의해 천도교가 3·1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동덕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은 현도 115주년을 맞아 교단을 위기에서 기사회생시켜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천도교를 우리나라 최대의 종단으로 발전시켜 교육·문화·사회 전반에 걸쳐 낙후된 민도(民度)를 고양(高揚)시킨 의암성사의 불퇴전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교단중흥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총부는 의암성사의 업적을 귀감으로 삼아 제2의 현도를 이룩할 수 있도록 교단 내 여론을 집약해서 교령 선거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헌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령 선거제도는 각 연원간의 이해 상충으로 인한 갈등이라든가 대의원 선임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 등으로 교단의 동귀일체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교헌을 개정하여 교령선거제를 교령추대제로 개정할 수 있도록 2년 안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헌개정특위를 구성하여 교헌개정을 추진하면서 지방별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실한 신앙생활과 모범적 교단경력을 겸비한 숙덕 교인 중에서 도와 덕이 높고 사리사욕 없이 교인들의 사표가 되는 인재를 교령으로 추대할 수 있도록 교헌 개정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교헌개정안이 확정되고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면 세부규

정을 마련해서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포덕 광제의 목적을 이루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동덕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를 위난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방법으로 정성을 다하면 그 어떤 괴질도 거뜰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위생수칙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에 매진함으로써 하루 빨리 신앙회복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교단중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함께 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기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1(2020)년 12월 1일

천도교 교령 송 범 두 심고

제13장 기념 송

1. 천 - 은 이 망 극 하 여 경 신 사 월 초 오 일 에
 2. 한 - 울 님 하 신 말 씀 개 - 벽 후 오 만 년 에
 3. 나 도 성 공 너 도 득 의 너 희 집 안 운 수 로 다

1. 글 로 어 쨌 기 록 하 며 말 로 어 쨌 성 언 할 까
 2. 네 가 또 한 침 이 로 다 나 도 또 한 개 벽 이 후
 3. 이 - 말 씀 들 은 후 에 심 - 독 희 자 부 로 다

1. 만 고 없 는 무 극 대 도 여 몽 여 각 득 도 로 다
 2. 노 이 무 공 하 다 가 서 너 를 만 나 성 공 하 니
 3. 무 극 대 도 닦 아 내 니 오 만 년 지 운 수 로 다

후렴

기 장 하 다 기 장 하 다 이 내 운 수 기 장 하 다

좋 을 시 고 좋 을 시 고 이 내 신 명 좋 을 시 고

포덕행진곡

1. 우 리 들 - 은 - 개 벽 - 군 신 성 의 특 사
 2. 오 늘 날 - 은 - 포 덕 - 날 십 십 의 일 일 사
 3. 우 리 들 - 은 - 포 덕 - 사 창 생 지 도 자

수 운 선 - 생 - 심 법 - 을 개 승 하 여 서
 천 도 교 - 의 - 큰 큰 - 을 활 승 하 여 서
 운 수 있 - 는 - 그 사 - 람 만 나 게 되 면

온 천 하 에 천 덕 을 넓 게 넓 게 퍼 리 라 온 천 하 에 천 덕 을 넓 게 넓 게 퍼 리 라
 살 길 찾 는 창 생 을 길 - 인 도 하 - 자 살 길 찾 는 창 생 을 길 - 인 도 하 - 자
 시 운 시 변 의 는 하 고 삼 - 칠 자 전 - 해 시 운 시 변 의 는 하 고 삼 - 칠 자 전 - 해

포 - 덕 - 은 - 우 리 들 의 천 직 이 로 다
 몸 과 마 - 음 - 다 바 - 쳐 창 포 덕 을 하 자
 당 당 정 - 리 - 밝 히 - 어 포 덕 을 하 자

포 - 덕 - 은 - 우 리 들 의 천 직 이 로 다
 몸 과 마 - 음 - 다 바 - 쳐 창 포 덕 을 하 자
 당 당 정 - 리 - 밝 히 - 어 포 덕 을 하 자

[권 도 문]

「도」란 것은 사람이 한갓 지켜서 사업만 할 뿐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체득하여 어김이 없게 함이니, 어찌 삼가지 아니하리오.

사람이 세상에 남에 한울 성품으로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건마는 능히 그 성품을 거느리는 이가 적고, 누구나 집에서 살지 않는 이가 없건마는 그 집을 잘 다스리는 이가 적으니, 어찌 민망치 아니하리오.

성품을 거느리니 한울이 있고 집을 다스리니 도가 있는지라, 어찌 한울과 도가 멀다하리오. 그러므로 한울은 만물을 낳고 도는 일을 낳나니, 어찌 물(物)과 일이 또한 멀다하리오. 물은 일을 낳고 일은 먹는 것을 낳는지라, 어찌 일과 다만 밥을 또한 멀다하여 어길 바리오. 이러므로 한울이 없으면 생함이 없고, 생함이 없으면 먹는 바 없고, 먹는 바 없으면 일이 없고, 일이 없으면 도가 없을지니라.

이런고로 한울은 화생하는 직분을 지키므로 잠깐도 쉬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한울이 일부 일각이라도 쉬게 되면 화생변화

지도가 없을 것이요, 사람이 또한 일용지도를 잠시라도 떠나게 되면 허령창창한 영대가 가난하고 축날 것이라. 이리므로 수고롭고 괴롭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도는 금수라도 스스로 지키어 떠나지 않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이것을 저버리며 떠날 바리오.

두려워하고 삼가함은 더욱 군자의 절중함이라. 군자는 능히 이 사단을 지키어 천도를 순히 함이니, 어찌 삼가지 아니하리오. 대저 천도가 여기에 지날 바 없는지라, 삼가 지킬진저!

우리 대선생님께서 경신 사월 초오일에 강령지법을 지어 사람으로 하여금 한울님 모심을 알게 함이요, 한울님 모심을 알면 가히 씨 한울님 말씀함을 알지라, 어찌 의심할 바 있으리오. 사람이 이것을 다 지키면 수심정기 할 것이요, 만일 지키지 못하면 배천 역리함이라.

한울은 사람에 의지하여 변화가 무궁하고, 사람은 밥에 의지하여 만사를 행하는지라, 어찌 도를 멀리 구하며 능히 근본을 깨달아 지키지 아니하리오.

모름지기 사람마다 신령한 마음이 있어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수족이 있어 능히 동정함으로써 만사를 능히 다하

여, 마시고 먹고 입는 바는 도시 다른 바 없건마는 그 근본을 알아 지키는 것이 적으므로, 한울을 등져서 영대가 혼미하고 진실로 한울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지라.

군자는 이것을 능히 알고 순히 지켜서 잠시라도 떠남이 없으므로, 영대가 한울같이 신령하고 그 밝음이 일월같고 그 앎이 귀신같아서,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일월로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고 귀신으로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할지라.

근래에 들으니 혹 입도한 지 수삭이 못되어 발령이 되어 스스로 아는 바 있어 능히 도를 통하였다 하니, 진실로 민망하도다. 이같이 발령이 속히 되는 것은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한울님의 가르침을 알게 함이니라.

이와같이 한울님이 가르치시는 이 운수에, 만일 실상을 알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능히 천지로 더불어 조화를 운용할지라, 삼가 지켜 어기지 말지어다. 만일 우리 선생님의 도가 아니시면 어찌 창생을 건지리오. 이러므로 오직 「수명을랑 내게 비네」하신 것이라.

방금 성령이 현세하여 밝음이 엄숙한지라, 능히 근본을 알아 지


키는 데에는 선생의 밝은 도로써 명하여 가르치심이 있어, 홀로 묘연한 사이에 받음을 알 터이요, 만일 이 이치를 여기는 사람은 만일 지공(萬日之功)이 있어도 한울님과 스승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못할 터이니, 진실로 애석하도다.

이 몸은 선천이기(先天理氣)로 화생함이요 이 마음은 후천이기(後天理氣)로 받음이라, 이렇고로 세상사람이 한울님을 모시지 아니함이 아니언마는, 후천 운수를 알아 지키지 아니하면 한울이 간섭치 아니하는 바, 한울이 간섭치 아니하면 오직 사람의 중함으로도 놀다가도 죽고, 자다가도 죽고, 섰다가도 죽고, 앉았다가도 죽을 지라, 이와 같이 죽음이 무상한 것은 그 간섭치 아니함을 반드시 알지라. 만일 지키는 사람도 이 운수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설령 정성이 지극할지라도 한울이 간섭치 아니할 터이니 깨닫고 생각하라.

이렇고로 「한울님께 복록정해 수명을랑 내게 비네」하신 바라. 복록은 의식이라 의식은 선천 후천이 다른바 없는지라, 밥은 한울님 은혜를 생각하고, 도는 스승님 은혜를 생각할 것이니, 삼가 파혹하여 대도를 순성하라. 은혜를 생각한다 하여도 그 근본을 알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어찌 한울님의 감동함이 있으리오. 실상을 알고 지키어 대도 견성하기를 바라노라.

사인여천 (事人如天)

사람이 곧 환우이니
사람 섬기기를 환우같이 하라

주최·주관  천도교중앙총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경운동) 수운회관 우)03147

www.chondogyo.or.kr /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02-732-3956 Fax 02-739-4533